
새로운 상황의 공공성 의제:
생태 커먼즈 사회 디자인을 위하여
A New Agenda for Publicness
in New Conditions:
Building Social Design Based on
Ecological Commons

이광석
Lee Kwangsuk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투고일 2022년 12월 31일 / 심사일 2023년 1월 15-31일 /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31일
Received Date 31 Dec, 2022 / Reviewed Date 15-31 Jan, 2023 / Accepted Date 31 Jan, 2023
p-ISSN. 2765-2572 / e-ISSN. 2765-7825

PP.086-095

요약

오늘날 디자인의 '동시대적' 과제와 역할은 무엇일까? 이 글은 기후 재난 속 생태주의적 물음에 답하는 디자인의 실천적 역할을 독려한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상황에 내몰린 '기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맺는 상호부조와 시민력을 강화하는 '공유(共有)', 즉 커먼즈의 가치를 강조한다. '생태 커먼즈 사회 디자인' 개념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위태로운 시민들이 서로 연합해 꾸리는 돌봄과 생태 전환의 에코디자인 구상을 제안한다.

Abstract

What are the contemporary challenges and roles of design today? This presentation encourages the practical role of design in responding to ecological questions amidst climate disasters. Above all, it emphasizes the value of "sharing," or commons, which strengthens mutual support and citizen power formed autonomously by "climate citizens" who are caught in the climate crisis. Through the concept of "ecological commons social design," it proposes the eco-design concept of care and ecological transformation created by vulnerable citizens who stand united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오늘날 공공성 위기는 기후 재난의 생명 절멸 상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기력으로 드러난다. 환경 이슈에 책임 있는 기관 제도의 작동 불능 상태는 물론이고 각자도생의 이윤 추구 논리만이 여전히 압도한다. 당장의 기후위기는 그 과정에서 다치고 누락되는 생명 약자와 '생태 난민'을 갈수록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반면에 공동체 전환에 관한 성찰적 논의나 기후위기에 대응한 사회 약자의 안전망 모색은 부재하다. 그나마 긍정적 신호를 줬던 정부와 기업조차 '녹색 위장술(green washing)'에 골몰한다. 국고와 공공 자원을 동원해 반환경을 친환경으로 위장하거나, 그린을 통한 비즈니스 효과만을 거두는 데 공적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

위기를 대하는 시민사회 분위기는 크게 다르다. 전국 각지로부터 3만 5천여 명이 운집했던 '9.24 기후정의 행진'은 그 징후다. 기후 위기는 이제 당파를 넘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됐다. 기후 재난의 현실 앞에서 보인 공(公)과 사(私)의 무기력과 나태를 넘어서는 생명 약자들이 직접 주도하는 생태 디자인의 사회적 구상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제까지 공적 대표 기구들의 역할이나 민관 거버넌스(협치)를 강조해오던 관행에 의존하기보다는, 기후위기 상황에 내몰린 '기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맺는 상호부조와 시민력을 강화하는 '공유(共有)', 즉 커먼즈의 가치를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

'생태 커먼즈 사회 디자인'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위태로운 시민 스스로 꾸리는 상호 돌봄과 생태 전환의 에코디자인 구상에 대한 제안이다. '커먼즈'는 배타적 경쟁과 불로소득의 승자 게임이 아닌 시민 협력과 공생 가치를 확대하려는 풀뿌리 자율조직체이다. '생태 커먼즈'는 인간만이 아닌 못생명의 안녕과 번영을 아래로부터 도모하려는 커먼즈들의 연합과 동맹이다.

'생태커먼즈 사회 디자인'은 바로 생태 약자들 자신이 '기후 정의'에 입각해 상호 호혜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함께 약동하는 생태주의 사회 설계를 지칭한다. 여기서 언급한 기후 정의는 기후위기를 둘러싼 모순의 실체와 핵심이 결국 자본주의 체제 내 자연과 생명 수탈에서 배태된 '부정의'와 근원적으로 얽혀 있으며,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는 현 고착 상황을 영영 벗어나기 어렵다.

이 커먼즈, 생태주의, 생태 커먼즈의 개념들이 내포하는 '공공성' 실천의 의미를 살피고, 이로부터 생태 커먼즈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징후적 사례와 새로운 에코디자인 사회실험이 갖는 대안과 함의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자본주의 경쟁보다는 사회 약자 중심의 '협력'을, 자원의 개발과 수탈을 벗어난 상호 '호혜'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에코디자인 사회 설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내고자 한다. '생태 커먼즈 사회 디자인'은 즉, 환경 인문학적 관점을 구현할 수 있는, 현재 지구 공동의 위기 상황을 넘어서려는 생태주의 실천에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개입이다. 📌

공공성의 새로운 상황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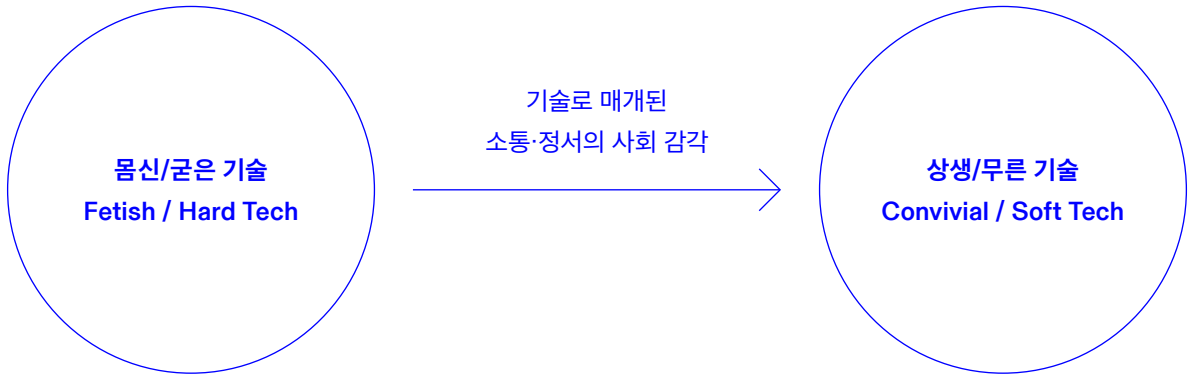
지구 전체의 생태 위기와 그 징후로서 코로나 19 재난,
그리고 플랫폼 자본주의 질서 아래 드러난 공공성의 무능력

- ① 인류세 Anthropocene 기후위기
행성의 고통, 기후 재난 가속화, 인간 중심주의 문제
- ② 코로나 19 변수
공통감각의 위기, 재난 약자 돌봄의 공백, 각자도생 논리
- ③ 인공화(플랫폼 인클로저 질서) 가속
기술 폭식(메타버스 신드롬), 도구적 합리화,
사유화된 기술감각(카카오 먹통 사태)

공공성의 신생 감각들

- 새로운 위기 상황 변수를 공사(公私) 모두 다룰 수 없는 국면
- 위기 대응의 생태감각, 공통감각(커먼즈), 기술감각 배양
- 세 가지 감각을 통한 사회의 '생태커먼즈 디자인' 모색

기술감각



- 기술주의와 개발·성장 논리 주축
- 생태(자연·사회) 파괴 일조
- 기술 엘리트 중심주의
- 기술의 도구적 합리화에 의존

-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조
- 개입 여지 크고, 용도 변경 가능한 기술
- 창의적 시민 창제작 활동 연계
- 생태-기술-인간, 상생적 가치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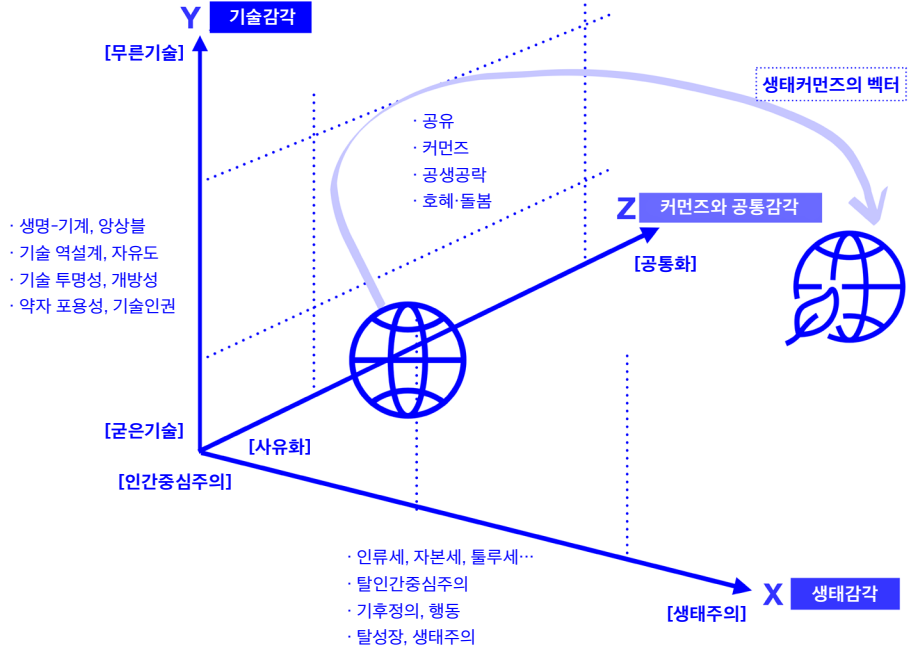
생태감각

- 생태감각: 기후위기 시대 생태주의적 감수성 지수
- 성장과 개발의 경제 논리를 넘어 공동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인간중심주의적 접근을 벗어난 생태 실천
- (비)인간 종들과의 상호 공존을 통해 후속 세대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사회적 공감을 세우는 일 중요
- 자본세(Capitalocene)로 뒤틀린 생태 균열의 구도를 진단, 자본주의 기술의 속도와 질주를 틀어 '다른 삶'을 기획하는 생태주의적 실천 감각 모색

커먼즈와 공통감각

- 커먼즈: '함께'(com-) '의무를 진다(under obligation/duty)'는 뜻의 '무니스'(munis) 혹은 '무너스'(munus)에서 온 '무니아'(munia)가 모여 이룬 말
- 사유기업과 공공정부 관리를 넘어서서, 시민 커뮤니티의 자율과 자치에 의해 유무형 자원을 공동 생산, 관리하는 '공통(共有 common)'의 호혜·돌봄의 전망
- 동시대 자본주의 '인클로저'(중획 enclosure)에 맞서 한 사람 이상이 참여해 유·무형의 자원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공통의 협력 체제
- '공유' 경제의 자원 셰어링(sharing), 중개(relaying) 모델과 다른, 천연 자원, 물질재, 노동, 서비스, 데이터 등 자원 커머닝(commoning, 공동체 협력 생산)의 새로운 조직화 방식. 커먼즈는 공통감각(sensus communis) 즉, 나와 타인이 함께 한다고 느끼는 교집합적 관계와 정서적 연결. 우리 사회는 공통의 감각에 이상 징후

생태커먼즈의 위상학



생태커먼즈 사회 디자인

기술감각

생태감각

커먼즈와 공통감각

오픈 디자인

개방·협력·수리·재활용·변경·
공유·반독점...

생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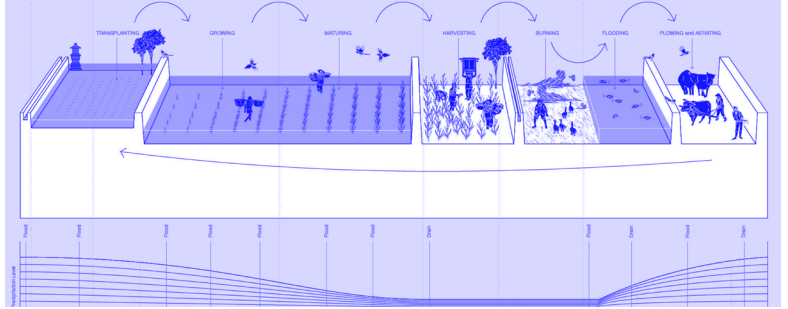
환경·회복·지속가능성·순환·
생명·조화·지역·느림...

커먼 디자인

돌봄·연대·호혜·상호부조·
탈성장·공동생산·자율·자치...

로텍(Lo-TEK)

- 로텍, Low Tech와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의 합성어.
자본주의의 생명 인클로저에 맞서 선주민들이 보유하고있던 종자 등 농생태학, 토종 전통 지식 중요 [그림 1]
- 생태주의 기술이 집약된,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려는, 미래 생존을 위한 건축, 인프라 디자인 매뉴얼이자 새로운 생태 실천 모색



[그림 1] 로텍(사진 출처: Julia Watson, *Lo-TEK, Design by Radical Indigenism*)

위키하우스(WikiHouse)

- 저비용 고효율의 오픈디자인/오픈소스형 집짓기 키트 [그림 2]
- 오픈소스 디자인, 탄소 저감형, 지속가능성(합판 조립, 블록형 해체 가능)
- 이용자들에게 고칠 권리와 용도 변경 권리 부여



[그림 2] 위키하우스(사진 출처: Wikihouse)

플랫폼 협동 협력주의

- 인간 공생 마련을 위한 플랫폼 기술 매개형 대안 고민
- 소유·경영 공동 책임제, 이익 재분배 등 플랫폼의 사회적 확대
- 민주적 플랫폼 기술을 매개한 호혜적 커먼즈 노동 결사체 모색 [그림 3]
- 플랫폼 노조/조합 확대
예: 뉴욕 소재 청소용역 업체 플랫폼 업 앤드 고(Up&Go) [그림 4]



[그림 3] Platform Coop(사진 출처: Platform Co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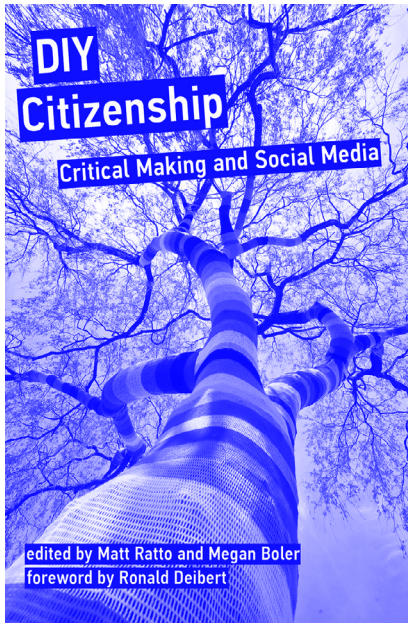
[그림 4] 플랫폼 업 앤드 고(사진 출처: Up&Go)

에코(사회)디자인 역능

- 시민 주도의 반인클로저 상상력을 사회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토대와 리터러시 기반 마련
- 오픈디자인, 영토해킹, 시빅해킹, '비판적' 제작, 적정기술, 오픈플랫폼 등 자립과 연대의 실험 및 역능 사례 발굴 공유 [그림 5-7]



[그림 5] <영토헌킹-Urban Jam(Territory Hacking: Urban Jam)>, 2018(사진 출처: 박찬국)



[그림 6] Matt Ratto, Megan Boler, *DIY Citizenship*(사진 출처: The MIT Press)



[그림 7] Self-Repair Manifesto (사진 출처: iFixit)